

## 118. 생산부에서 감속기 조립작업을 하던 근로자에서 발생한 난청

성별	남	나이	52세	직종	감속기 조립부서	업무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---	-------	----

- 개요:** 곽OO은 1988년 1월 S정공에 입사, 2001년 12월 퇴직한 자로 생산부 조립반에서 감속기의 조립작업을 하였다. 3-4년 전부터 이명과 난청이 있었으나 큰 장애를 근무기간 동안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였으며 치료를 받지 않다가, 2002년 1월에 E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었다.
- 작업환경:** Y대학보건센터에서 2002년 4월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는 가공부서의 개인 소음노출수준이 74 dB(A)와 76 dB(A)이었다. 2003년 1월 본 연구원이 곽OO이 근무한 조립 작업위치에서의 측정 결과도 73-76 dB(A)이었다. 소음 발생공정인 선반공정이나 도장공정은 작업자의 위치로부터 3-5 m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, 또한 해당 공정의 소음수준도 80 dB(A)를 초과하지 않았다. 그리고 도장작업은 동일 공간내의 작업장에 있지만 도장부스로 차폐되어 있었으며, 1일 작업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.
- 의학적 소견:** 곽OO은 과거력상 이질환력, 약물 복용력(항생제 복용 등), 두부외상 등의 특이 병력은 없었다. 음주는 소주 반병에서 1병 정도로 주 1-2회, 흡연은 13-14개피/일로 30여년을 하였다. 근무시에 귀마개는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. S정공 입사 전에 J감속기에서 3년, H기계에서 6년, H정공에서 2년간 작업하였다. 3-4년전부터 이명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, 난청과 관련한 장애는 근무기간 동안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였다. 2002년 1월에 Y이비인후과를 경유하여 E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.
- 결론:** 곽OO가 현재 호소하는 증상(청력장애 및 이명)은
  - 청각검사상 중이검사에서 중이의 이상이 없고, 기도와 골도의 청력손실이 있는 중도의 감각신경성 난청(우측, 6분법상 51, 좌측 51 dBHL의 평균청력손실)으로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며,
  - 과거력상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력이 없으나,
  - 작업환경 측정결과 및 업무의 특성상 평균소음 노출수준이 청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,
  - 순음청력검사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이지 않으며, 이와 같은 감각신경성 난청이 80 dB(A) 이하의 소음 노출로 인한 역치손실로 추정하기는 어려워,

업무상 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